

ISSUE & FOCUS

[한반도선진화재단·월간조선 공동기획]

대한민국 도시의 세계화 순위 조사, 그 의미와 희망

황성돈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한선재단·월간조선 공동기획
대한민국 도시의 세계화 순위 조사, 그 의미와 희망

황성돈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

한선재단은 작년 하반기부터 월간조선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추진해 온 대한민국 도시들의 세계화 수준에 관한 평가 결과를 최근 월간조선 4월호를 통해 발표하였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6개의 광역자치단체 전부와 78개의 전국 기초자치시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총 94개 자치단체들의 세계화 수준을 평가한 것인데, 크게 ①세계화의 여건, ②세계화 노력, ③세계화 성과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총53개의 세부지표로 측정하였다. 평가에는 각 시청의 홈페이지와 정부 및 세계적인 기관들이 발표하는 통계 자료집 등에 수록되어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사용되었다. 평가 결과 도시들 마다 세계화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광역자치단체들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세 부문 모두에서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그 뒤를 이어 세 부문 모두에서 2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들 중에서는 창원시가 전국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경주, 구미, 파주, 용인이 잇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초자치시의 경우 도시 인구 규모별로도 나누어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50만 명 이상 도시들 중에서는 창원시가, 2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도시들 중에서는 경주시, 20만 명 미만 도시들 중에서는 안동시가 종합 1위로 평가되었다. 여건을 고려한 순위도 발표하였는데, 여건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타 도시들에 비해 노력을 더 잘 기울여 결국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보다 나은 세계화 성과를 기울인 도시들을 “격려할 도시”로 특별히 구별하여 발표하였다. 여수, 구미, 아산, 춘천, 평택 같은 곳이 바로 그런 도시들이다. 예컨대 여수시의 경우, 세계화의 여건은 전국 24위인데, 전국 3위의 세계화 노력을 기울여 결국 여건을 훨씬 상회하는 전국 15위의 세계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대적으로 좋은 세계화의 여건을 갖추었으면서도 노력 면에서나 성과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결과를 낸 “분발해야 할 자치단체들”도 발표에 포함되었다. 한선재단과 월간조선은 이번 평가 결과 우수한 세계화 도시로 평가된 도시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의 시민들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기로 했는데, 오는 4월 18일 해당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런 평가는 국내에서는 사실상 처음 시도된 것으로, 앞으로 2, 3년 주기로 계속하기로 했다.

한선재단은 왜 이런 평가를 하기로 한 것인가? 여기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도시들인 너무나 허접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외형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운영 구조, 도시 속 삶의 양식과 내용이 그렇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인 것이 정상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세계적인데 국민들은 전혀 세계적이지 못한 곳에서 사는 것이 정상일 수 없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이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품위 있는 도시들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발전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2, 제3의 도약 가능성이 바로 도시의 세계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가 혼자, 중앙 부처 혼자, 대통령 혼

자, 장관 혼자 잘 뛰고 나머지는 잘 따라오며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국가 및 중앙 중심적 국가발전 전략으로 이 만큼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 이 전략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3%대로 지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 저조한 경제성장률이 여러 해 지속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 2만불 언저리에 다다른 이후 지금까지 가파르게 치고 나가질 못하고 정체해 있다. 거대 투자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신규 투자는 고사하고, 투자율 자체가 오랫동안 저조하다 못해 퇴조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기존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이 침체 궤도를 벗어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기엔 나라의 살림 규모가 너무 커졌고, 상대해야 할 국내외 플레이어들도 너무나 많아지고 다양해졌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 다시금 도약의 국면으로 발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가? 국가발전 전략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 혁신의 요체는 바로 현장 문제의 양상과 원인, 문제 해결의 수단과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능력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 요동, 즉 자기 혁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 과정을 통해 마음껏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 주체들 중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행·재정적 수단과 자원을 가진 주체들이 바로 도시와 도(道)들이다. 이 과정에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시와 도들에 의한 이런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게임 룰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과 기존의 이익 구조와 권력 기반의 불가피한 파괴에 대해 사회가 포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조정하는 일이다. 이처럼 도시와 지방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대한민국이 제2, 제3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근 주장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셋째의 이유는 6월 지방선거가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서, 지방선거의 혁명적 변화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에서 도시가 이처럼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선거는 이와는 너무나도 무관하게 이뤄져 왔다. 해당 도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어떤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후보자나 정당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저 정치 세력 간, 이익 집단 간 ‘갈라먹기식’ 정치싸움터에 불과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렇게 될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겠다고 장관직이나 교육감 자리를 내 놓는 사람들이나, 새 정치한다며 국민들을 잔뜩 기대하게 해 놓고서는 하루아침에 기성정당과 기습적으로 연합을 선언해 버리면서도 시민들의 삶터인 도시와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단 한 줄의 비전이나 포부,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들의 눈엔 지방자치는 권력투쟁의 현장일 뿐이다. 이래서는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맡고, 도지사를 맡고, 시·도 의원을 맡아서는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 미국의 전략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적어도 이 나라들 정당과 정치인들의 전략적 판단 능력을 능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인들의 자세를 가지고는 중국의 공산당, 일본의 자민당,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이 나라들의 정치인들을 능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방 도시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전략과 조치들을 가지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그런 실속 있고 의미 있는 지방선거가 이번엔 이뤄져야 한다. 유권자들도 바로 어떤 후보자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어느 후보가, 어느 정당이 자신이나 가족과 같은 지역 연고인지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거의 ‘묻지 마’식으로 투표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도시민의 삶터가 살고,

나라가 산다.

이런 세 가지의 문제의식 하에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월간조선은 그동안 일련의 조사와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우선 지난 20년 동안 지방선거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 공약으로 등장했었는지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지난 3월호에 게재한 바 있다. 자신이 맡게 될 도시를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것인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선거 공약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어 이번 도시세계화 수준 평가 연구를 진행하여 월간조선 4월호에 그 결과를 게재한 것이다. 이 조사 연구와 더불어 두 가지의 연구가 현재 더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 각 도시들이 어떤 발전전략들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황에 바람직한 도시 발전전략은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와 자율적 요동에 의한 창조적 파괴를 가능케 하고 이를 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 구조 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각각 5월호와 6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지난 70년 간 열심히 달려온 대한민국이 지금 분기점에 서 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퇴조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혼돈과 질서의 경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상태의 전형적인 특징, 즉 기존의 국가 발전 전략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상승 곡선을 타느냐 아니면 하향 곡선을 타느냐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제대로 된 자율적 요동을 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 핵심은 바로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는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다.

지금까지는 각자 먹고 살 일이 바빠서, 나라 전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서 도시를 세계화한다는 것이 사치로 생각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서 있는 대한민국으로선 돈이 없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도시를 세계화하는 일은 더 이상 사치도 아니다. 한계에 다다른 대한민국의 경제와 경쟁력을 파격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이 바로 도시의 세계화를 통해 열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들이 각자의 전략을 가지고 초일류 제품과 지식과 사상, 제도와 사업들로 무장하여 세계를 향해 발신하며 뛰쳐나가고, 동시에 세계로부터 많은 양질의 자본, 기술, 정보와 지식을 불러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고, 투자해 보고 싶고, 가서 배워보고 싶은 도시들로 인식될 때, 진정 대한민국은 의미 있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술한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는 혁신적 사고요, 행동이다.

세계적인 도시를 누가 만드는 것인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도시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이 만드는 것이고, 열정과 분노가 있는 시민들이 만드는 것이다. 곧 있으면, 도시의 공식적인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만은 우리나라의 도시들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특단의 결심과 방안들이 정당 지도자들이나 후보자들, 유권자들 사이에 뜨겁게 격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시대가 주는 기회는 우릴 오래 기다려 주지 않는다. 비켜갈 수 없는 인류 역사의 교훈이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